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사회복지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 보고서**

2025.09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

목 차

I. 토론회 개요	1
1. 토론회 개요	1
2. 진행순서	1
3. 프로젝트 설계	2
4. 퍼실리테이터 디자인	3
II. 토론회 요약	4
1. 토론 결과 요약과 해석	4
III. 토론회 결과	6
1. 참여단 인식 조사	6
1) 인구통계	6
2) 인식조사	7
3) 토론 후 조사	9
4) 토론 전/후 조사 비교	11
2. 소그룹토론	13
1) 1토론 결과_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	13
2) 2토론 결과_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 미래 전략	15
IV. 부록	18
1. 소그룹데이터	18
1) 1토론 참가자 입론	24
2) 2토론 참가자 입론	36
2. 참가자 대상 사전조사 결과	60
3. 현장스케치	65

I. 토론회 개요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18일(화) 14:00 - 17:00, 메종글래드 제주
- 참가인원 : 200여명
- 주 최 :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 진행순서

진행시간		소요 시간 (분)	진행내용		비고
부터	까지				
13:30	14:00	30	참가자 등록, 조 편성 안내		진행팀
14:00	14:05	5	개회식	주요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사회자
14:05	14:10	5		개최 취지설명 - 포럼 실무위원장	고승화
14:10	14:20	10		인사 말씀 - 포럼 수석대표	
14:20	14:25	5	본 진행 준비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코리아 스픽스
14:25	14:30	5		현장 조사(인구통계, 사전인식조사)	
14:30	14:40	10		토론요령 소개	
14:40	15:45	65	원탁회 의	제1주제: 제주 복지 분야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분야일까요? -토론, 주요 발표자 인터뷰, 상호토론, 투표	
15:45	16:50	65		제2주제: 제주도의 사회복지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토론, 주요 발표자 인터뷰, 상호토론, 투표	
16:50	17:00	10	기념촬영, 폐회		진행팀

3. 프로젝트 설계

1) 토론방식 설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는 2026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발라는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회복지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갖추고 하였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론하도록 하였고, 지역과 연령의 위계를 벗어나 수평적·자율적으로 소통하도록 하였다. 다만, 입론 시 결론부터 한가지 주제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참가자가 입론을 하실때에는 경청해 주시는 토론 규칙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

토론을 돕기 위해 각종 ICT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 웹토론 시스템 : Google G-suite 기반의 실시간 의견 취합 및 분석 솔루션
- 무선투표 :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실시간 무기명 투표
- 리딩퍼실리테이터(1인): 전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하며, 각 테이블 논의 결과를 연결·조율하고 주요 쟁점을 전체 참여자와 공유
- 오거나이저 및 PD(3인) : 행사 기획 및 당일 현장 운영 총괄, 플로어매니저 관리
- 오퍼레이터 (1인) : 현장 의견 화면 표출, 투표 진행 및 통합결과 화면 표출
- 플로어매니저(5인) : 오거나이저를 보조하며 현장 세부 운영 지원 및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관리 및 지원
- 분석퍼실리테이터(4인) : 상향식 의견 수렴과 분석, 분석 시트 관리
- 시민 퍼실리테이터(20인): 당일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진행흐름에 대해 안내하고, 모의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회에 참여 하였다. 시민퍼실리테이터들은 실시간 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며 참가자 발언을 요약·정리하고 전송하며 전송 전 참가자의 의견에 대해 구두 동의를 구한 후 전송

토론 진행 과정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Mingul : 참가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원탁의 의견을 교환
- 입론 : 참가자의 발언시간, 토론마다 1분30초 동안 본인의 의견을 발표
- 상호토론 :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입론, 보충 주장, 질의응답 등 자유 진행
- 전체토론 : 각 테이블 주요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리딩 퍼실리테이터 (진행자)와 전체 참가자가 함께 의견 종합 및 쟁점 정리하는 시간

- 인식조사(토론 전·후) : 무선 투표기를 통해 인구통계 조사, 인식조사, 토론 의제에 대해 토론전/후 조사를 진행

4. 퍼실리테이터 디자인

2025년 9월 2일,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여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참가자와의 밉글(사전 안내), 입론(참가자 의견 발표), 의견 정리, 상호토론 진행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토론회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들에게는 당일 진행 큐시트(타임테이블)와 사전조사 결과가 제공되었으며, 사전 숙지를 통해 원활한 현장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리딩 퍼실리테이터, 오퍼레이터, 오거나이저, PD 외에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테이터 연합회 소속의 인증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여 분석퍼실리테이터, 플로어매니저로 역할을 나누어 현장에 배치하였다.

이들은 퍼실리테이터 워크숍에 참여하며 제주의 사회복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전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가지며,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행 절차를 숙지하기 위해 큐시트 강독, 모의 토론, 상황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다.

Ⅱ. 토론회 요약

1. 토론 결과 요약과 해석

- 9월 18일(목) 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사회복지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1층)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제주도민과 사회복지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 고승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 1토론에서는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에 대해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2토론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미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 리딩 퍼실리테이터의 안내에 따라 토론 전 인식 조사가 먼저 진행되었고, 이후 주제별 테이블 토론과 전체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서 토론 후 인식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토론 결과와 전·후 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 여성(57.1%)이 남성(42.9%)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50대(28.7%)가 가장 많고 20대(25.3%)와 40대(24.1%)가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이 72.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제주시 읍·면 지역(12.8%), 서귀포시 동지역(10.5%), 읍·면지역(4.7%) 순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생이 18.7%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직업군은 소수에 그쳤다.

1토론은 제주 사회 복지서비스 변화 요인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주 사회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	토론전(%)	언급량(%)	토론후(%)
1. 초고령 사회 진입	44.4	41.3	30.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16.4	14.0	17.6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3.5	4.5	5.7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15.2	16.2	23.9
5. 제주도 인구 감소	3.5	3.9	6.3
6. AI 디지털 대전환	5.8	4.5	3.1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11.1	15.1	12.6
8. 기타	-	0.6	-
합계	99.9	100.1	100

제주 사회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서 '도민의 맞춤형 복지 수요 증가'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토론 전에는 초고령 사회 문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토론 후에는 맞춤형 복지 수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토론 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44.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사회·경제적 위기 증가(16.4%)와 맞춤형 복지 요구(15.2%)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토론 과정에서 언급량을 보면 초고령 사회 진입(41.3%)이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맞춤형 복지 요구(16.2%)와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15.1%)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토론 후에는 맞춤형 복지 요구(23.9%)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부상하였고, 초고령 사회 진입(30.8%), 사회·경제적 위기 증가(17.6%) 순으로 정리되어 복지 서비스 변화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토론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미래 전략	토론전(%)	언급량(%)	토론후(%)
1. AI-복지 융합 (사회복지 대응 AI 센터 설립)	32.7	34.5	33.8
2. 제주 복지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 (제주 복지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42.0	38.7	44.4
3. 도민 마음건강 대응 (3무, 5특)	22.8	26.8	20.4
4. 기타	2.5	0.0	1.4
합계	100	100	100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 복지 미래 전략 논의에서 '제주 복지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이 전략은 토론 전 42.0%, 언급량 38.7%, 토론 후 44.4%로 전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I-복지 융합은 토론 전 32.7%, 언급량 34.5%, 토론 후 33.8%로 꾸준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으나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에 비해 후순위로 평가되었다.

도민 마음건강 대응은 토론 전 22.8%, 언급량 26.8%로 일시 상승했으나 토론 후 20.4%로 줄어 들었다.

Ⅲ. 토론회 결과

※ 본 보고서의 모든 조사 결과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음. 이는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음.

1. 참여단 인식 조사

1) 인구 통계

성별	여성	남성	합계
비율(%)	57.1	42.9	100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합계
비율(%)	25.3	14.4	24.1	28.7	6.3	1.1	100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합계
비율(%)	72.1	12.8	10.5	4.7	100

직업	학생	농·임·어업·축산업	판매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주부	사회복지 관련	기타	합계
비율(%)	18.7	0.0	0.0	2.3	2.3	1.2	71.3	4.1	100.0

이번 토론에는 여성 참여자가 57.1%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42.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20대 25.3%, 40대 2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는 14.4%였으며, 60대는 6.3%, 70세 이상은 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7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제주시 읍·면지역은 12.8%, 서귀포시 동지역은 10.5%,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4.7%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7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생은 18.7%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영업과 전문직은 각각 2.3%, 주부는 1.2%였으며, 농림어업과 판매/서비스직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기타 직업군은 4.1%로 나타났다.

2) 인식조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주도 사회복지기본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으며, '들어본 것 같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도 22.0%로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5.8%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노인복지로 65.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 11.5%, 저소득층복지 10.9%, 아동·청소년복지 9.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복지 분야는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제주사회의 복지 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비율(%)
1) 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 등과 이로 인한 적재적소 예산 배분의 어려움	22.0
2) 신기술(AI) 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현장 즉각 적용 어려움	2.9
3) 복지 관련 도민 간 욕구 조정의 어려움 (사회적 약자의 증가)	6.4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욕구 증가와 대응 어려움	15.0
5)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업무량 증가 문제	31.8
6) 생애주기별로 확대되는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중독, 불면, 마약류 등)의 발생	14.5
7)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이탈 현상	6.4
8) 각종 검진 기술의 발달로 복지 서비스와 건강 관리 수요 꾸준히 증가	1.2
합계	100.2

Q 현재 제주사회의 복지 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주 사회복지 과제발굴
200인 원탁회의

1. 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 등과 이로 인한 적재적소 예산 배분의 어려움 38
2. 신기술(AI) 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현장 즉각 적용 어려움 5
3. 복지 관련 도민 간 욕구 조정의 어려움 (사회적 약자의 증가) 11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욕구 증가와 대응 어려움 26
5.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업무량 증가 문제 55
6. 생애주기별로 확대되는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중독, 불면, 마약류 등)의 발생 25
7.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이탈 현상 11
8. 각종 검진 기술의 발달로 복지 서비스와 건강 관리 수요 꾸준히 증가 2

투표 : 173

조사 결과, 현재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업무량 증가 문제가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 배분의 어려움이 22.0%,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욕구 증가와 대응의 어려움이 15.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확대되는 정신건강 문제(14.5%) 역시 주요한 개선 과제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복지 관련 도민 간 욕구 조정의 어려움(6.4%),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이탈 현상(6.4%)이 뒤를 이었으며, 신기술(AI) 변화에 따른 현장 적용의 어려움은 2.9%, 각종 검진 기술 발달에 따른 복지 서비스와 건강 관리 수요 증가는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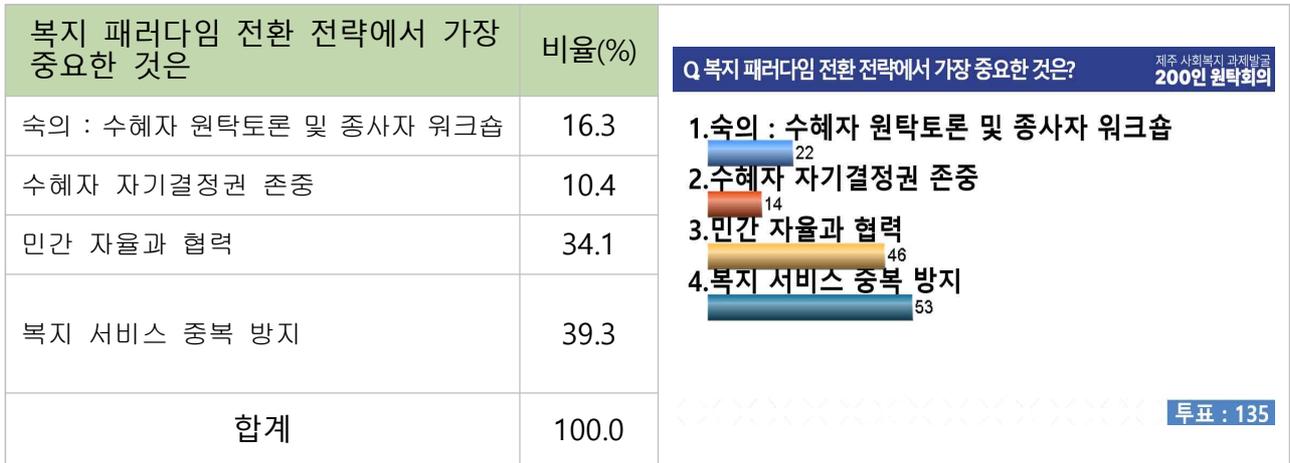
3) 토론 후 조사



초고령 사회 대응 의견 우선순위에서 참가자들은 가족돌봄에서 공공돌봄 전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43.8%)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 격차로 인한 노년층 사회적 단절(16.3%), 장애인 초고령화 대응(15.0%), 제도·정책 미비(14.4%), 종사자 고령화 문제(10.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I 복지 융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중복과 편중을 개선하여 복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전체의 5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정보 통합이 37.0%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꼽혔으며, 사각지대와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는 기능은 11.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복지 서비스 중복 방지가 전체의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민간 자율과 협력이 34.1%를 차지해 중요한 전략으로 꼽혔으며, 수혜자 원탁토론과 종사자 워크숍을 통한 숙의는 16.3%, 수혜자 자기결정권 존중은 10.4%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생애주기별 대응이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공·민간·주민 협력 강화가 24.3%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꼽혔으며,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개발·보급(14.3%), 예방 복지 강화(13.6%), 전문가 투입 확대(12.9%)가 그 뒤를 이었다.

4) 토론 전/후 조사 비교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요인	토론전(%)	토론후(%)
1) 초고령 사회 진입	44.4	30.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16.4	17.6
3) 국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3.5	5.7
4) 국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15.2	23.9
5) 제주도 인구 감소	3.5	6.3
6) AI 디지털대전환	5.8	3.1
7) 저출생 가족 형태 변화	11.1	12.6
8) 기타	0.0	0.0
합계	9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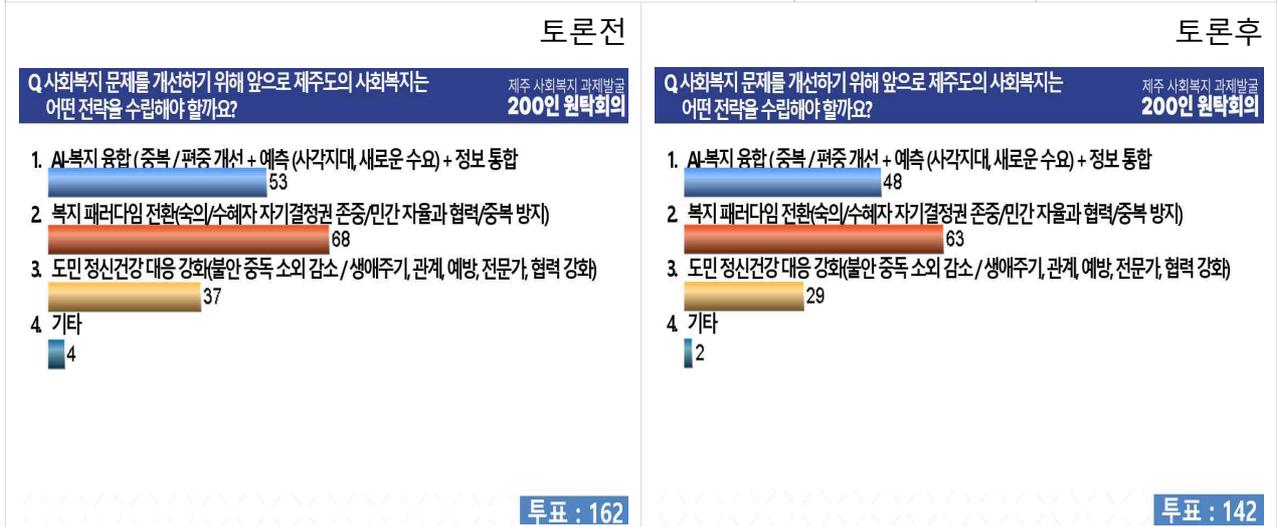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을 토론 전과 토론 후로 비교한 결과, 몇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토론 전에는 초고령 사회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으나, 토론 후에는 맞춤형 복지 수요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적 위기, 보편 복지 수요 등도 함께 중요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초고령 사회 진입은 토론 전 44.4%에서 토론 후 30.8%로 크게 감소하여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나 토론을 거치면서 상대적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국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는 토론 전 15.2%에서 토론 후 23.9%로 크게 상승해 새로운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사회·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는 16.4%에서 17.6%로, 국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는 3.5%에서 5.7%로 각각 소폭 상승하면서 점진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인구 감소 또한 3.5%에서 6.3%로 비중이 늘어나며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는 11.1%에서 12.6%로 소폭 증가했으나, AI 디지털 전환은 5.8%에서 3.1%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졌다.

사회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의 사회복지에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토론전(%)	토론후(%)
AI-복지 융합 (중복 / 편중 개선 + 예측 (사각지대, 새로운 수요) + 정보 통합)	32.7	33.8
복지 패러다임 전환(숙의/수혜자 자기 결정권 존중/민간 자율과 협력/중복 방지)	42.0	44.4
도민 정신건강 대응 강화(불안 중독 소외 감소 / 생애주기, 관계, 예방, 전문가, 협력 강화)	22.8	20.4
기타	2.5	1.4
합계	100	100



사회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복지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복지 패러다임 전환은 토론 전 42.0%에서 토론 후 44.4%로 증가하며 제주 복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과정에서 숙의, 수혜자 자기결정권 존중, 민간 자율과 협력, 서비스 중복 방지 등이 주요 요소로 강조되었다.

AI-복지 융합은 토론 전 32.7%에서 토론 후 33.8%로 소폭 상승하여 꾸준히 중요한 전략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복·편중 개선, 사각지대 및 새로운 수요 예측, 정보 통합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도민 정신건강 대응 강화는 토론 전 22.8%에서 토론 후 20.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안·중독·소외 문제 해결과 생애주기별·예방 중심 지원, 전문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2. 소그룹 토론

1) 1토론 결과_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	언급량
<p>1. 초고령 사회 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 돌봄에서 공공 돌봄 전환 속도 높일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 문제, 장례 문화 서비스 확대 필요 - 노인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 불화, 경제적 문제 발생 - 재가 복지, 건강 관리, 가사 지원 등 확대 필요(야간 돌봄 공백 발생) - 1인 독거노인 증가로 독거노인의 서비스 수요 증가(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 2) 제주 사회 노노케어 실정에 비해 제도와 정책 못 따라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프라 차이(서귀포 노령 인구가 더 높음) 3) 장애인 초고령화 대응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가족의 애로를 이제 사회가 안아야할 시기(고령 장애인 부모 부재 문제) - 등록된 장애인 반이 노인세대 (고령 장애인 부양율 증가) - 장애인 노인시설 부족과 행정 서비스 미흡 4) 종사자 고령화 이중고 (신규 종사자 확보 어려움) 5) 노령 인구 경제 활동 및 노동력 저하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연장에 따른 다양한 욕구 발생(고령자 고용창출) 6) 소득 격차가 가져오는 노년층 사회적 단절 심화 7) 통합 복지,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등 수요 폭발적 증가(케어해야 할 지역도 넓어짐) -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대응 	41.3
<p>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 청소년 예방책 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HD, 조울증 청소년과 종사자 모두 힘든 상황 (청소년 쉼터) - 코로나 19 이후 게임, 콘텐츠 등 은둔형 중독문제 심각화 - 부모의 경제적 문제로 아동학대, 방임 발생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폭력에 대한 인지 부족,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발생) 2) 사회 경제 변화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입소자 수 감소 (저출생) vs 정신질환센터는 포화상태임에도 계속 입소 - 1인 가구가 위기 가구로 변화, 고립가구 증가 - 복지 사각지대인 1인 중장년 vs 노인, 장애인 지원혜택 증가 - 빈부격차 심화 및 조건부 수급자가 많아지는 상황 3) 도민 자해, 자살 등 정신 건강 문제 증가 	14.0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	언급량
-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의 개설, 서비스 미비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자리 복지 : 아르바이트도 자리도 구하기 힘든 청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직만 선호하는 기업 2) 생애주기별 다양화 되는 복지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수요 증가 - 정보는 많지만 이용, 공급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 (미디어, SNS 홍보는 활발) - 사회적 약자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대응 (수요 증가) 필요 - 현재는 사회적약자 (빈곤층)에 과도한 지원 3) 가족 단위의 통합 복지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가족 단위 여행 (개인적인 형태)의 수요 증가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 수혜자의 인권 요구 대폭 증가 : 수혜자 책임성 등 제도 변화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들 포함한 개별 요구 증가 (사회복지사의 인력, 예산 등 처우개선 필요) -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미비 (1:1 맞춤형, 개인별 다양한 환경 고려) -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혜택 불균형 - 인구 구조별 다양한 대응 (외국인,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이주민, 1인 가구 등) - 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동반 요구 증가 2) 장애인 개별 특성을 맞춘 복지 서비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 정도에 따른 개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추가 (장애 수당, 제도는 기반이 잡혔는데) - 발달장애 맞춤형 지원 만들어 지는 중 (진단, 판정, 치료 단계별) 3) 아동 복지 시설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린 학습자 지원 아직은 많이 부족 (장애 판정 없는 느린 학습자 지원 없음) - 특수교사 지원 부족 4) 복지관의 시내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거점 부족으로 인한 복지사의 업무 과중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제한적 5)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체계의 다양화를 조절할 컨트롤 타워 필요 (중복 방지) - 전달 체계의 일관성 유지 6)대학전공학과외부(치료관련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와 관련된 도내 대학의 전공 부재 (치료 욕구에 대한 대응 어려움) 	
5. 제주도 인구 감소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중장년층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구의 육지 유출 속도 심화 (유입 정책 필요) - 청년 유출(인적자원 감소)로 서비스 질 저하 초래 	

제주 사회의 복지 서비스 변화 요인	언급량
2)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복지 정책 변화 중 (선별에서 보편 복지로) - 인구 감소는 경제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사회복지 큰 영향	
6. AI 디지털 대전환	4.5
1) 상담 및 심리검사 등에 AI활용이 가능 - 전문적인 분야로 한정하면 서비스에 제한을 줄 수 있다 - 행정에서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2)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어려운 도구 - 기술 발달에 비해 취약계층(노년층)의 정보 접근은 여전히 취약 3) AI에 장악되는 일자리, 청년들 근로 의욕 상실(정신적 피해)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15.1
1)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다문화 등 복합적 복지 수요 증가 - 가족 책임에서 돌봄의 다양화, 공공화 - 낮은 출생 인구, 폐교, 다문화 가정 돌봄 원하지만 어려움(원도심, 농어촌) - 다양한 서비스 있지만 아이들 없음(제주시) - 사회적 고립, 고독사로 발전 - 다양한 사각지대 보완 -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관리 2) 저출생 예방 차원의 복지 목표 수정 -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현실화	
8. 기타	0.6
1) 고령층 운전면허 제한 (운전면허 반납) - 제주 반납 수당 현실화 필요 (10만원 지급, 육지는 50만원)	
합계	100.0

2) 2토론 결과_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 미래 전략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미래 전략	언급량
1. AI-복지 융합 (사회복지 대응 AI 센터 설립)	34.5
1. 서비스 중복 개선- 중복지원, 사각지대 조사 및 보호, 예산 효율성 1) 제주 가치 돌봄과 노인 맞춤 돌봄 유사한 서비스 통합 필요 (컨트롤타워) -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서비스 개선 (사각지대 조사, AI에 자기결정권도 부여) - 중복서비스라는 개념 정립 필요 (밀반찬을 A/ B 두 기관에서 받는다고 중복, 수혜자 입장에서 고민 필요) - 새로운 컨트롤타워 신설 보다는 기존 협의체를 활용 (연계 강화, 유사기구 통합) 2)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만나고, 행정 업무는 AI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미래 전략	연급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상담을 통한 감정 노동 어려움 해소 (AI와 사회복지사 적절한 업무 배분) 3) 청년 일자리 창출, 더 나은 복지 서비스 구현 4)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은 사회복지사 업무 효율성 개선 2. 서비스 편중 해소 지역 맞춤 욕구 충족 - 읍/면 지역 재가 돌봄 인력 부족, 동 지역 서비스 편중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 편중 해소 3. 새로운 복지 수요 예측, 예방성 강화 - 가족 형태 변화, 자녀들의 부모 공양 의식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 (공정성) 4. AI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관심 (AI 행정으로 줄어든 예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노년층, 지역별 격차 등 해소) - 독거노인을 위한 반려 로봇, AI 활용 한글 교육 등 	
2. 제주 복지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 (제주 복지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 현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족한 대체인력 상황 등 복합상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의 통합, 연결(컨트롤 타워) 필요 2)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 유연한 예산집행과 서비스 3) 종사자 처우 개선(비현실적인 인원 배치, 능력 상응 보상, 교육) 4) 청년 정착과 요양 수요 대응 5) 미래세대를 위한 발언권 2. 속의 과정을 통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정책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간 토론을 통한 사회적 조절 2) 생애 주기 별 원탁 토론 필요 3) 소통중심의 집단지성 활용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다양한 빈곤의 관점 모색) 4) 복지외의 다양한 단체들(기업, 도시재생)과 함께 5) 소통 부재 해소,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3. 제주형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찾아가는 복지(방문, 이동 복지 강화,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 활용) 2) 읍면지역 수요와 맞춤형 대응 3) 기관과 대상에 맞는 임상치료사 연결 필요 4) 단순 복지 서비스를 위한 복지 돌봄 시민 양성 (통장과 이장의 처우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5) 복지분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개발 	
3. 도민 마음건강 대응 (3무, 5특)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방 차원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과 진단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미래 전략	연급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방임, 폭력 등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및 아동 청소년 교육 - 접근성이 용이한 정신 상담 서비스 제도 도입 2.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문제 발생시 대처 매뉴얼과 전문적 인력 배치 확대 3. 불안심리 / 1인가구고립감 / 중독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 상담 서비스 확대 (학대 피해자, 자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문화조성과 인식 개선 - 자살 예방 정책 확대 (자살률 전국1위 오명, 청소년 자살률 증가) 2) 청소년 우울, 불안 등 정신과 중심의 의료서비스 지원(학교 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통합 상담 센터 설립 필요(원스톱 복지서비스) 4. 도민 정신 건강 대응 라운드 테이블 필요 (공론의 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탁 토론과 같은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4. 기타	0.0
합계	100

IV. 부록

1. 소그룹 데이터

1) 1토론 참가자 입론

T	구분	내용
6	6. AI 디지털대전환	ai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상담 및 대상자 심리상담 등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1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정신 건강 문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남(자해, 자살 등 확대)
16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보편적 복지일때인 예전과 달리 인권의 주요 관심사가 증가되면서 종사사 포함, 대상자들의 요구(자기결정권)에 부응해야 하는 부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개별화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19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전국 비율 최고로 1인 가구의 증가, 유입 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7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돌봄 문제점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3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개인인권과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시점.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예산 등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7	6. AI 디지털대전환	다가오는 미래에는 ai 활용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발생이 많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접근이 필요하다.
4	1. 초고령 사회 진입	백세시대 도래했기 때문이다.
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입소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가정에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고 느껴지고있음.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	5. 제주도 인구 감소	제주의 인구가 감소하기 되면서 청년층, 중장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도 인구감소를 뽑았다.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인구 증가하나 서비스는 부족하다.

T	구분	내용
11	1. 초고령 사회 진입	대한민국이 2024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다.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진입하는 속도에 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늦는 것 같다.
2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기초수급자 10명 중 6-7명 1인가구, 남성이 70-80% 차지한다. 1인가구가 위기가구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코로나19로 스마트폰, 게임, 콘텐츠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등 중독문제 심각화 되고 있다.
4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필요하다.
8	1. 초고령 사회 진입	주변을 돌아보면 어르신만 계시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13	1. 초고령 사회 진입	청년인구가 육지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흐름이 아니라 노인인구의 일자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	1.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자에 대한 요양문제, 장례문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서비스 중복이 많다. 다양한 곳에서 진행해야 하고, 보편적 서비스 자원 증가가 필요하다.
6	1. 초고령 사회 진입	가족중심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 위주로 변화되고 있어서 초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 사회 진입에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초고령화 되고 있어 포괄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될텐데 분배의 문제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5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청소년 쉼터에서 보면, 많은 정신건강(ADHD, 조울증)으로 청소년도 종사자도 힘든 상황이다. 이 경우 가족의 돌봄의 영향이 크다.
18	1. 초고령 사회 진입	2025년 치매인구 100만명 이상인데 장기요양 이용률이 부족하다.
13	1. 초고령 사회 진입	장애인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했었는데, 돌아가시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14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사회복지 뿐만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복지욕구가 발생하므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T	구분	내용
2	6. AI 디지털대전환	ai 도입이 활용이 목적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로 설정되며 이에 대해 서비스에 끼치는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17	1. 초고령 사회 진입	늘어나는 노인수 대비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9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맞춤형 복지 수요는 증가되면서 개인형 맞춤 서비스 수요 증가하고 그 방향으로 수요를 늘려 가야 한다.
4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아동 케어의 어려움이 많다.
8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복지에 대한 갈망이 늘어나고, 돌봄/기초생활수급/차상위 요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의 질병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혜택 증가하여 이로 인해 예산은 늘어나는데, 자원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11	1. 초고령 사회 진입	발달장애인의 초고령화에 관심이 있고,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해 경험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고령화 되었을 때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고령화 되었을 때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증가로 기존 서비스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19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연령대 청소년, 청년의 나이가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고령화 진입은 이미 되었고, 아동의 인구 급격한 감소,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이 있기 때문이다.
13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복지관의 모든 기관들이 시내에 몰려있어서 시외권에 갈때 바로 대응할 수 없는 힘든점이 있다. 복지거점이 부족하다. 그것에 대응하는 복지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4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개인형 복지 욕구 증가. 동일 세대 내에서도 각각의 욕구 많음
15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기존의 노인 및 장애인 대상에서 복지사각지대인 중장년, 고립가구로 복지의 수요가 증가했다.

T	구분	내용
8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예산적인 한계, 보편적인 복지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기에 요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2	1. 초고령 사회 진입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가 노령인구가 많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프라 차이가 있다.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가족중심에서 사회책임으로 다채로운 사회복지 필요하다.
18	5. 제주도 인구 감소	과거 도민 복지가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기에 시대에 변화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등록 장애인의 반이 노인세대다. 현 20대가 50대가 되는 시점에 노인 부양 비율이 더 증가할 것이며 모든 세대에 걸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17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복지 수혜자의 다양한 케이스와 복합 욕구와는 달리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	1. 초고령 사회 진입	인구 감소와 달리 노인 급증 현상에 대한 세금을 지급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3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제주도 특성(경제활동의 제약 있음) 등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많아지고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상자들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음. 위기가구의 증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2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저출생의 문제로 인한 고령화 사회 진입의 문제가 있다.
5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동학대, 방임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특히 아동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문제로 아이들이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정 정책이 필요하다.
14	1. 초고령 사회 진입	장애인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장애인과 그 부모도 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0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동력 떨어지고, 청년층이 육지로 가면서 혼자 남는 노인층이 서비스 변화가 필요하다.
16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청소년 복주거지의 예산은 항상 적은 추세다. 지속적으로 청년은 성장하고 있고, 자립해야 하는데 특히, 주거의 문제를 돕는 행정에서 실질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임대예산(밖에 없어서)에 맞추다 보니 개인별 주거복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T	구분	내용
9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맞춤 복지 서비스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6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의 질병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문제, 사회적 관계 단절문 제, 정보에 따른 격차 문제 등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에 것이다. 또한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1. 초고령 사회 진입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층 진입하면서 제주역시 초고령사회 진입 중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기대수명이 높다. 문화여가, 사회참여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 기존 빈곤 돌봄 복지만으로는 어렵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어 렵다.
4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문제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시 경력직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경력을 쌓기 위해 취업을 원해도 할 수 없는 경우 많아 자신감이 하락되며 취업 의지도 감소된다.
13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제주지역 경제규모 자체가 광역시보다 작다. 경제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일자리부족 등이 많아 가정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소규모 가족, 위기 아동 등이 생기고 있다.
8	1. 초고령 사회 진입	제주도도 초고령사회가 진입하였으나, 통합복지하나로나 돌봄관련 사업 이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력문제도 많다.
1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일자리 지원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의욕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다.
2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15	1. 초고령 사회 진입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2	1. 초고령 사회 진입	전국 중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가 고령화에 취약하다. 돌봄의 주체인 청 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20-40대가 없어지고 있다. 읍면동에는 50-60대가 주연령대로 활동하며 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끼치 고 있다.
10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자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경제적인 타격이 느껴진다. 정신적 문제가 느껴 진다.. 외국인 노동자.. 경제적 여유가 없다보니 정신적 이유 등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요양원에서 보호 어르신 변화가 많다. 근육, 정신상태 등에 특정 부분에 대한 질적 서비스 중요해지고 있다.

T	구분	내용
1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제주는 5개 양육시설이 있지만 정원이 모자라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지만 서비스는 많지만 아이들이 없다. 서비스는 훌륭하지만 아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 불화, 경제적 문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출산율과 결혼 저조나 이혼 등으로 독거 가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족 형태 변화 - 조부모, 미혼모, 미혼부 등)
14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화가 되면서 사회문제와 인구급증에 따른 경제, 의료, 사회문제가 우리 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안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11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신문에 일가족 동반 자살문제들이 최근에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살해하고 부모도 자살하는 위기 가족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맞벌이를 하고 양육을 하면서 자녀를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출산율
6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관련 서비스 증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자원은 한정되나 초고령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10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등이 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7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빈곤노출, 편부모 집안환경의 경우 정신장애나 건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1인가구와 고령화가 맞물렸다. (돌봄 정책 필요)
7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복지 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일대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루어야 한다.
3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노인이나 다문화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관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T	구분	내용
2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내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가족 형태의 변화, 특히 1인가구 증가될 것이다.
19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거주지 통계상 제주도는 50% 이상으로 청소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폭력에 대한 인지가 줄어든다. 또, 청소년은 온라인 도박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9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복지 서비스 중에 개개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복지 요구가 가장 시급합니다.
13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미디어나 sns에 사회복지가 노출은 많이 되고 있으나 이용하거나 공급이 여러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 않다.
1	1. 초고령 사회 진입	통합돌봄이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쪽에서도 법에 영향에 따라 사업진행에 있어 제도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12	6. AI 디지털대 전환	스마트 기기 사용 수준이 노인마다 다르다. 이 부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8	1. 초고령 사회 진입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르신의 증가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고, 정년 연장에 따른 다양한 욕구 발생하기 때문이다.
4	1. 초고령 사회 진입	경로당 이용 인구 많고. 주변에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입원시 돌봄에 다른 경제적 문제가 많다.
15	1. 초고령 사회 진입	재활을 하여 사회에 참여해야하는데 연령대가 50대~60대로 높아지는 상황으로 기능적으로 어렵다.
2	5. 제주도 인구 감소	자립청년들이 제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이동하며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노령층 인구 증가와 반대로 어린이 인구 감소, 어린이집 폐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
16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과거 5년 전보다 현대로 오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변화로 장애인, 노인, 등 개별 복지는 세분화,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별된 각 계층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맞춤형 복지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12	1.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화 사회 문제 꾸준하나 변화가 요원하다. 고령화 문제는 다른 연령대와 연결되어 확대되고 있다.
17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인구 증가는 정책에 반영되는 목소리 증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국가 정책 변화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T	구분	내용
10	1.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량도 관련 있지만, 노인이 노인이 돌보는 형태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나 젊은 층이 노인층을 돌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에 젊은 층도 노인을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4	5. 제주도 인구 감소	제주도 청년 인구 감소 중이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1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부모님 세대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6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서비스 이용 대상자(도민 중에 취약계층, 외국인, 다문화가정, 일반 도민, 영어교육도시에 따른 이주민 등)가 인구구조가 다양화가 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필요하다.
20	1. 초고령 사회 진입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보면 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노인복지 시설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1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1인 및 고립가구는 증가하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며, 그 반면에 노인, 장애인 등은 지원혜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9	1. 초고령 사회 진입	청년 이탈 원인과 노령 인구 비율 증가로 경제적 요건과 복지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이 있다.
5	1. 초고령 사회 진입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거주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주간활동보호시설은 많은 반면 거주시설이 부족한데, 거주시설이 많이 생길수록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3년마다의 평가에서 오는 서류작업 등 행정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8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시설 입소시 반려동물도 동반입소를 원하는 상황으로 나의 욕구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반영하기를 원한다.
7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14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지역 내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복합적 문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므로 사회·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1. 초고령 사회 진입	각 지역에 노인들이 교통편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12	5. 제주도 인구 감소	제주라는 지역에 있어 영향이 크다. 인구감소는 자원의 문제도 야기하는 것이고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T	구분	내용
13	1. 초고령 사회 진입	돌봄이 필요한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동지역뿐만 아니라 노인이 읍면지역까지 있기에 그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8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고립 은둔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4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원도심 출생인구가 낮다. 학교 폐교도 많아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2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현재 저출생이 진행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가구가 많고, 가족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6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다양한 도민(육지에서 오신 이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2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1인가구가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1인가구에 대한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40대 남성 순으로 높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변화가 필요하다.
17	1.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산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와 독거노인 문제 등의 복지요구가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3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욕구의 다양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서비스체계가 다양화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복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
10	1. 초고령 사회 진입	장애인의 고령화,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에서 노인 시설에서 가야 한다. 행정적으로 제대로 안 잡혀있어 행정문제에 대한 제대로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 부재의 문제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짐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5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인구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책으로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대 혹은 맞춤형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13	1. 초고령 사회 진입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고령화를 대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9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저출생으로 1인 갖고 구성원이 늘어나고, 가족 형태의 변화로 복지 사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T	구분	내용
14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인구 증가, 속에서 특히 1인 독거노인 증가로 독거노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 증가할 것이다.
19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빈곤층이 생각보다 많지만 현행 제도안에 들어가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더라도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 한부모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각 상황에 맞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20	1. 초고령 사회 진입	가장 보편적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이고, 계속해서 노인의 수가 늘어나서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15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정신질환센터에서 실습을 진행하는데 현재도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소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 은둔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
1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1인가구 증가, 근로 방해 요인이 많다. 어려움을 행정예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들의 욕구나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1인이며 노인의 일자리 등에 필요하다.
7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화 시대에 맞게 복지서비스 예산이 노인돌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8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요구들이 있지만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난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기 어려움으로 전달체계가 일관성있게 진행되기를 원한다. 욕구의 불균형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모든 욕구를 수용할 만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3	1.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생으로 인해 고령화가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인관련 서비스가 많다고 생각한다. 세대간의 불평등 문제가 확대되었다.
20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와 그에 맞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이다.
12	(상호토론)	제시된 요인들이 서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서로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나 서로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함.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위기 등의 문제는 연관된 부분이기도 함.
10	1.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산, 고령화 시대지만 젊은 층의 경우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유학가는 경우가 있다. 고령화되는 노인이 있지만 서비스 사각 지대 발생한다. 이것에 대해 사회의 시선은 서비스를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6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저출생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하다.

T	구분	내용
18	(상호토론)	3번 - 원도심을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다. 폐교된 학교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2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욕구가 세분화되며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특성(연령층 및 수혜자 수)에 맞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14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7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 약자에 집중 되었던 것과 달리 전세대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수요 증가로 전 도민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	1. 초고령 사회 진입	1인 가구, 특히 노인 독거 가구의 경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3	1. 초고령 사회 진입	수요에 비해 서비스제공자들이 부족하다. 직접 찾아가 신청이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인고령자들의 서비스제공 가능한 전문가들이 계속 배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시설 증가, 노인 서비스 증가하나 소득 하락으로 돌보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5	1. 초고령 사회 진입	제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재가복지,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강화되어야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고령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16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현재 기초수급비, 노령수급 비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특히 독거 노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로, 외부에 노숙인의 경우 수급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지급된 예산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인원과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지속성 관리방법 필요)
9	1. 초고령 사회 진입	복합적인 문제점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은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14	1. 초고령 사회 진입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 증가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여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T	구분	내용
1	1. 초고령 사회 진입	제주 초고령사회이며, 1인가구 독거노인 인구가 많은 상태인데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등 극복했으면 한다.
13	1. 초고령 사회 진입	복지관 현장에서 노인복지 쪽 프로그램이 많다. 노인인구가 많아졌고, 노인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11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책은 미진하다.
18	(상호토론)	2번 - 건강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현재 돌봄을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7	1. 초고령 사회 진입	현재 고령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계신 장애인 분들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이에 맞는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6	(상호토론)	복지서비스가 아직까지 신청주의인데 대상이 될 경우는 바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2	5. 제주도 인구 감소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가 침체되어 세수가 줄어들어 서비스 개발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사회복지 서비스 변화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16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맞춤형 복지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발달장애 부문에서도 진단, 판정, 치료, 생애주기별(월예이징~ 웰다잉) 맞춤형 지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세부적인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개인중심 서비스가 강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입장에서는 느린학습자 등 케이스에 대한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특수교사 지원 등.) 특히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느린학습자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부족하여 지원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3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섬의 특징이 있다. 인구감소, 젊은 세대 인구유출 등이 초고령사회진입으로 연결됨. 이 것이 결국 도민의 맞춤형 복지나 보편복지 수요로 증가하게 된다고 봄
20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수립

T	구분	내용
18	(상호토론)	2번 - 탄력근무와 아동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돌봄이 가정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14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정들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많아지고 있고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한다.
9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개개인의 맞춤 복지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으며, 맞춤 복지 요구에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6	(상호토론)	사회적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
2	1. 초고령 사회 진입	주간에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있으나 야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수혜자는 많아 지나 야간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
19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제주도 내에는 치료와 관련된 전공학과가 없고,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도 없어 치료에 욕구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에 맞는 전문치료를 받기 어렵고 입도한 이주민들이 원하는 치료 서비스도 부재한 실정이며 중재 치료가 필요함에도 제때에 받지 못하기 때문임
15	6. AI 디지털대 전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력.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어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이용시설보다는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1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아동학대, 아동방임에 증가하는 이유 중 보호자 약물 중독, 빈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제적으로 보호자와 분리시키기 보다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함
7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저출생 등 문제해결의 일차원적은 돌봄의 문제라 생각하고, 이를 해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1. 초고령 사회 진입	복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초고령사회로 인해 나타나는 노인 1인가구의 고독사 등의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17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세대와 분야, 가구 형태마다 다른 복지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한정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6	(상호토론)	청년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자리 발굴이 필요
18	(상호토론)	대기업, 공무원 등이 제택근무, 탄력근무 등 혜택을 받지만 일반 직장에서 적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T	구분	내용
5	1. 초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자 분들에 대한 이바지가 필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의미일텐데 초고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 나아가 공공 실버타운 등. 누구든 맞이하게 될 고령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이든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창출이 필요함.
4	(상호토론)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눔. 동지역의 현실은 어떠한지 궁금함. 특히 다문화 미취학 아동의 교육 및 케어 등에 대한 어려움 많음. 부모 교육 필요. 특히 엄마 보다는 아빠의 교육 필요. 농어촌 지역의 중장년층의 문제들이 많다는 의견.
13	(상호토론)	90대 노인분들도 치매가 걸리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리고 장기요양에 들어가지 않은 노인분들도 많다. 하지만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정보를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 (정보격차가 심하다.)
2	(상호토론)	어린이집 야간돌봄 서비스가 노인까지 확장되면 노인 야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6	1. 초고령 사회 진입	자연적인 인구감소 부분으로 장애인 부모(고령화되면서)의 부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양육자가 이모일 경우, 주보호자인 부모는 계시지만 연락이 부재일 경우 시술, 수술등의 동의 권한이 없어 민감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향후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6. AI 디지털대 전환	복지 디지털 분야는 세계적으로 발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취약으로 복지 서비스 접근 자체를 어려워 함.
18	(상호토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호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나의 가정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5	6. AI 디지털대 전환	AI의 시대라고 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현재에도 사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상호토론)	잘 키운 아들딸 육지로 보내 육지만 좋은 일 시킨다. 제주는 노인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의견 많은. 일하는 사람은 육지로 나가고 돌봐줘야 하는 사람만 늘고 있음.
4	(상호토론)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이혼 인구가 많음
3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돌봄욕구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가족의 여행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편적인 서비스 욕구가 나타나게 됨. 하지만 현재는 이런 관련된 기관이 없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보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는 실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봄

T	구분	내용
11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 수당이나 제도등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일정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이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가 추가 적으로 확대 되어야한다.
18	(상호토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져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2	(상호토론)	<p>동시대 양쪽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강 문제도 더 심각함. 1인 가구가 느끼는 여러 어려움도 심각함.(앞으로 내가 몇십년 안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음),</p> <p>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질병, 경제사정, 연령에 따라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해 지고 있음.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p> <p>현장에서 보면 노인에 대한 중복서비스 문제가 많음.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p>
19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 시 지역사회에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도 많지 않아 전문기관이 개설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음
5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아동복지시설의 특수교사 분들이 매우 부족함. 이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장애인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해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16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현재에는 다양한 대상자(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세밀한 지원 정책이 대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독사, 등)
4	(상호토론)	제주도 내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등을 제주도에 유치해야 함.
11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아동 돌봄 공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짐
3	1. 초고령 사회 진입	복지대상 노인이 늘어나면서 숙명적으로 노인대상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본다. 초고령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7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저출생 등 국가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 반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저출산 예방을 위한 세밀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요구사항이 있어야 지원이 되고 있다. 즉, 문제(1인 가구, 고독사 등)가 뉴스화 되어야 한다.

T	구분	내용
11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주거 돌봄 등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12	5. 제주도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원인 중 하나가 청년세대들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취업의 어려움, 우물 안 개구리라고 느끼게 하는 분위기도 이유가 있다고 함.
19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핵가족화, 1인가구, 독거 노인 등 가족 형태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되고 그에 알맞는 서비스가 필요함
4	(상호토론)	교통 문제. 제주도는 지하철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음. 차선도 점점 늘고 있으나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음. 골목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없음.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게 됨.
9	(상호토론)	기계가 복지다. 보조 장비가 좋은 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접근이 어렵거나 대여를 위해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보조 장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16	1.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들의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초고령의 진입으로 더욱 다양한 예산범위가 늘어나게 될텐데 적절한 예산의 분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호토론)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 이주 유행, 대기업 본사 이전 등으로 증가했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 혜택과 대기업 유치에 유리한 정책(도민 고용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등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4	(상호토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용 시 불편함이 많음. 양문형 버스 이용 시 불편함 있음.
8	(상호토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욕구가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것 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변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단기적 복지사업에 따른 지속적으로 장기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	(상호토론)	개별욕구들이 많아서 개별 사업과 개인센터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인력과 예산과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상호토론)	모든 문제의 시작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작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나라는 부유해지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일하는 노동자는 줄어들고, 복지 대상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T	구분	내용
8	(상호토론)	전달 체계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양한 기관의 제제로 기존에 계획했던 복지사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초고령사회-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녀에게 의존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상호토론)	인구감소는 자원에도 영향을 미쳐 질적인 서비스 확보, 분배에도 큰 영향을 미침.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생각함.
18	(상호토론)	주거가 인정이 되어야 의식주, 책임감, 양육 등이 해결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6	(상호토론)	복지서비스 신청할때 서류가 많아지고 있어서 신청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어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간소화 서비스 필요.
9	(상호토론)	맞춤형서비스는 맞춤형 복지가 좋으나, 예산이 많이 들고, 종사자의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반복적, 서류 간소화나, 종사자의 휴식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2	(상호토론)	(제주 인구 관련)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줄어들며 아파트(주거)에 대한 거품이 꺼져 주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전 건설 붐 당시 건축 인력들이 제주에 들어오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으나 공사 이후 제주를 떠나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혜택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제주에 남아 경제인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8. 기타	고령층의 운전면허 제한 필요(운전면허 반납). 제주는 10만원 지급. 육지는 50만원 준다고 함!
15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빈곤층에 과도한 지원이 되고 있다.
5	(상호토론)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처우가 매우 약함. 그 중 업무과다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거주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정신적 피폐에 대한 지원, 평가(3년치)에 대한 업무량 축소)하거나 채용 확대가 매우 필요함. 사회복지 정책이 복지당사자 뿐만이 아닌 정책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3	(상호토론)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음. 사회복지의 방향이 의식주의 해결은 기본이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배치가 필요한 시점

T	구분	내용
3	(상호토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서비스대상자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개이정보와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있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5	(상호토론)	느린학습자처럼 장애인에 속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안에서도 정책 지원의 갭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복지 모두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음
4	(상호토론)	초고령 저출생문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
8	(상호토론)	반려견 돌봄도 한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반려동물이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본인이 온전히 자립되고,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는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립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복지의 부분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16	(상호토론)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다소 다른 계층에 비하여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이라 청소년 보호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에서도 예산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부터 노인 전까지 지원되는 예산사업은 저조한 상황입니다(만9세~만24세에서 만17세~ 만21세는 너무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19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돌봄에 대한 욕구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출산 후 3년간 엄마의 양육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년간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교육을 이수 하였을 시 양육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함,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제주 올레길 코스를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2	(상호토론)	(제주인구감소)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청년세대)가 제주 내에 증가할 것이며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 세수확대로 이어져 복지서비스에 더 투입할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5	(상호토론)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시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 및 관심이 필요함. 요즘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령자들이 채워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6	(상호토론)	당근처럼 사회복지 플랫폼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자원을 요구하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르고 쉽게 자원 배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음.

T	구분	내용
9	(상호토론)	복지 종사자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발전은 하는데, 종사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나 교육 기간 및 참여 시간이 부족합니다.
2	(상호토론)	(제주도 인구 감소) 인프라 문제가 시급하다.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읍면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층이 많이 유입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읍면동의 인프라 차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5	6. AI 디지털대 전환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AI가 다 점령해서 무언갈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17	(상호토론)	현재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 기준으로 소규모 시설에서는 전문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또는 전문인력 지원 조례 재정 등)하여 개인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
16	(상호토론)	초고령사회진입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을때 노인성 난청, 노안 등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병이 노인복지 사업으로 해소될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륙도심에서는 전문적인 기관(시각장애인 복지회관)들이 있는데 제주의 경우 한 기관에서의 업무 확대 지원으로 해소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지원과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 양육을 방치하게 되면서, 다시 태어난다면 자녀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일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방임에서 구하기도 하지만, 내 자녀는 오히려 방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상호토론)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면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꾸 새로운 서비스만 도입을 하는 것 같다. -위기가정 문제: 제주위탁가정에 대한 수요가 적고 그에 대한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 -노인이나 장애인 영역에서 AI 도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에 대한 내용을 실례를 들어 이야기함

2) 2토론_소그룹 토론 참가자 의견

T	구분	내용
19	3. 도민 정신건강	1,2번은 정리가 덜 되었으며 시기 상조라는 느낌이라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도민이 먼저 건강해져야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말할

T	구분	내용
	대응	수 있다.
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노인돌봄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여 의료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 읍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동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1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민정신건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합리적 생각이 많으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올바른 정신건강을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4	1. 시 복지 융합	예를 들어 제주도에에는 제주가치돌봄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 복지 정책이 일원화 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었으면 한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1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많은 복지기관, 시설이 있지만 연결이 안되어 있어 복지가 하나로 통합하거나 연결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
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과 서비스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중심의 욕구 조사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욕구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수요자의 욕구 파악이 필요하고 공동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16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의 사회 변화 문제에서 정신건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립의 경우 스스로 사회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나타나지 못하기에 주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 조성 과 분위기 확대해야 한다.
5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초고령화에 대한 안전한 삶을 위해 양로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을 확충하거나 공공시설(대학병원 등)과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지가 많이 생길 것이다.
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자살 문제 심각하기에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1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중요하다. 단순히 처우개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육지부에 비해 열악하다. (예를 들면 시간외 수당 부분 등) 유급병가 부분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외로 나가는 인원이 발생하고 반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7	1. 시 복지 융합	복지 서비스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들어

T	구분	내용
		가고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AI 복합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전체 인구 계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 또한 늘어나고 있다. 다만 1인가구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며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이해/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들이 많이 개설되며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
6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건강문제 예방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개설이 필요하다.
14	1. AI 복지 융합	지금 현재 AI를 활용한 복지는 실제적이고,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분석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라든지 쓸림 현상 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19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인 대화 기구, 오늘과 같은 원탁토론처럼 각 도민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1-1의 경우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라 다양한 요구 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대화 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8	1. AI 복지 융합	신기술을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까지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I 복지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디지털 활용하면 더 많은 수혜자가 발생할 것이다.
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안들에 비해 대체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케어할 인력이 시급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사회복지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올려준다면 많이 개선될 것이다.
7	1. AI 복지 융합	AI를 통해서 사람과 달리 중복성 없이 효율적으로 분류해서 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	1. AI 복지 융합	제주시내 복지관은 동쪽에 편중되어 서비스의 서쪽에는 복지관이 없기에 AI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
13	1. AI 복지 융합	청년들과 ai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되고 신기술을 복지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관 및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데 이용한다든지.
5	2. 복지 패러다임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유형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복지

T	구분	내용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관 주도에서 민관협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복지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되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한다.
9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청년 우울과 경계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외 중장년 외 정신 건강에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청소년층의 우울증, 불안 등이 심각하다. 청소년의 정신과 진료 시 병원이 부족하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중심의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혹은 학교와 연계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6	1. AI 복지 융합	ai등 신기술 사회복지센터 설립 필요 - 복지문제 해결에 ai 기술 활용하기 위함.
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움직인다면 사회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각자 움직이고 있다. (예,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도시락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돌봄센터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함께 진행될 필요 있음.
1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노인, 청소년, 중장년층 등 모두 경제적 활성화 필요(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다.
1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AI가 도입이 되어서 여러 분야에서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 AI도입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
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제주복지 공동체는 제주 주민 전체의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제주주민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개선은 장애인, 일반인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것이 시작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접근성,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누구나 제주사회복지 공동체에 문제가 해결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소외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16	3. 도민	고령화로 1인 가구 증가는 당연한 사회문제인데 소외감, 경제의 문제가

T	구분	내용
	정신건강 대응	극대화될 것이다. 지자체의 복지사업에서 동지역보다 읍면의 경우 지원 사업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의 보편화, 평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원사업이 평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읍면의 경우 찾아갈 지자체 수도 적고, 교통수단도 적어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이 필요하다.
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기존 제도나 정책들로 복지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복지 문제의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10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제주지역에 맞게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도시 고독사, 공동체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전략수립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예방, 참여, 통합(건강, 돌봄, 일자리, 문화, 세대 통합 등)을 해야 한다. 건강, 문화 등 통합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일본 사례 중에 벤치마킹을 하자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거에서부터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도민 정신건강 대응 라운드 테이블 필요하다. 고립된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대화나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많다보니 각자 근무하는 분야에 요청이 많다. 그럼으로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는 등한시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한정된 예산에 대한 각계 각층의 합의가 필요하다.
12	1. AI 복지 융합	AI 사각지대 예측 부분을 언급하고 싶다.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 간단한 스마트, 디지털 기기 사용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19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항목 중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사회적 약자 증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감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센터는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원탁토론과 같은 대화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5	1. AI 복지 융합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복지수요 충족이 어렵다. AI와 신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AI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적용해야 한다. AI 챗봇, 음성인식 기술,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등이 노인의 복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I 분석을 통해 사전 대비 필요하다.

T	구분	내용
1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ai로는 중복에 대한 것은 대체할 수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노케어 등은 장애인 및 노인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처우개선이 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긴 문제점이 어느정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복지 욕구, 문제가 다양하여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움에 있어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안타까운 고독사가 일어나고, 경제침체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노인 일자리 창출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6	1. AI 복지 융합	ai 등 신기술 사회복지센터 설립을 통해 부족한 복지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해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10	1. AI 복지 융합	제주도의 전략은 육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난임제도 또한 육지는 되는데 제주는 안하고 있다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사회복지센터 건립은 좋고, 제주가 전략을 세우기 전에 다른 지역의 사업을 제대로 조사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9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 건강은 불안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으로 노출 될 수 있다고 본다. 도민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여 건강한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
14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인식이 정립이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복지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되기 전에는 한계가 올 수 있고, ai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정리가 먼저다.
8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떨어져서 오게 되면 대부분 학대피해자이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자해 등을 하게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치료센터 등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5	1. AI 복지 융합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등을 통해 미리 상황을 예측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8	2. 복지 패러다임	제주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말이 안되는 것 같다. 개인적인 욕구가 강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공동체란 의미는 무의미 하다. 전환(변화는 필요)

T	구분	내용
	전환	
15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적 건강의 대응이 없을 경우 사회적인 비용의 문제(범죄 등)가 증가할 것이다. 청소년의 쉼터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매뉴얼이 필요하다. 추가로 생명수당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적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19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는 현재도 계속하고 그 기구 또한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4	1. AI 복지 융합	중복 서비스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많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도 종이(서류)가 아닌 테블릿 pc 등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는 읍면동 지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16	1. AI 복지 융합	서울시에서는 AI를 통하여 복지 데이터 활용으로 행정업무의 지원이 되고 있다. 예산도출과 사업계획 등 변화추세를 한번에 정리해 주어 행정업무 효율로 현장의 당사자 돌봄에 조금 더 시간을 쏟을 수 있을 듯하다.
1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토론 1에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주도 청년들이 남아 있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질 수 있다.
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공공 민간의 협력 중이다. 공공에서도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 변화 진행중이지만 함께 갈수있는 업무부분에 통일성이 필요하다.
1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민의 정신건강이 우선적이다.
1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조례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자의 체계지침이 있는데, 승급과 처우에 대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해져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제주도 조례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인원배치등 관련지침이 나오는데, 지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지침을 실현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2	1. AI 복지 융합	AI센터 설립 등을 통해 중복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AI복지 융합센터를 통해 중복 지원을 찾아내고, 복지넷을 만들었으나 기관, 서비

T	구분	내용
		스를 알고자 했으나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만 알고 있고 일반 도민은 알지 못하고 있다. 중복 서비스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도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현재 정신건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많다. 일반 도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어린 시절부터 진행하면 사회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중장년기, 노년기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5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건강이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힘들음을 겪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5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성인분들이 오는 경우에도 대처 매뉴얼이 없다. 예를 들어, 칼을 휘둘러도 조치를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다. 따라서 간소화된 매뉴얼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한정된 자원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1	1. AI 복지 융합	누구나 공평하게 AI를 활용 가능하도록 지역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동 지역에는 공급이 많은데 비해 읍면지역 특히 섬지역에 정보격차가 큼). 대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AI 교육 강화 AI 관련된 실태조사 (종사자, 이용자) 시행이 있다.
10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복지 제도 자체가 너무 분산되었다고 느껴진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사회기구에서 이걸 두고 생애주기별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식으로 사회 복지적 요소를 넣을 수 있을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복지에서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꼭 복지분야를 넘어 다양한 단체와 기업, 도시재생들과 함께 협치,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8	2. 복지 패러다임	결국 현장에 정답이 있는데,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이나 정책 고위관계자들의 의견에 치우쳐

T	구분	내용
	전환	서 복지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의견반영), 정책 결정을 할 때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1. AI 복지 융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축적해서 사례 관리나 서비스중첩, 연계 등이 편리해질 것이므로 AI복지 융합이 중요하다.
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 등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하다.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하고, 마을 속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예시: 라면 카페
7	1. AI 복지 융합	감정 노동에 대한 해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I가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50%를 도와 주고 사회복지사들이 50%를 채운다면 효율적인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16	1. AI 복지 융합	AI를 통하여 사각지대의 서비스 대상자를 찾는 효율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결정권>이 함께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원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AI의 데이터를 관리자가 함께 이끌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1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이 필요하다. 중복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상호 협조하는 대화기구가 필요하다.
9	1. AI 복지 융합	복지 관련 도민간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조정할 역할이 부족하다. 복지 관련 민원들을 한 곳에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개선이 된다.
4	1. AI 복지 융합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AI로 해결할 수 있다.
5	1. AI 복지 융합	AI 신기술 사회복지 서비스 센터 건립해야 한다. AI가 대세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도 AI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AI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제안이 되면 예산 확보에도 용이할 것이다. 평가 등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도 AI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8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전 연령층에서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를 많이 보고 있으며,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심각화가 되어지고 있어 대안책이 필요하다.
17	1. AI 복지 융합	학업, 경쟁주의, SNS 사용 등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에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이고 관심은 낮기 때문이다.
14	3. 도민	요즘 각종 중독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고 게임이나 대인관

T	구분	내용
	정신건강 대응	계소통, 대인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정신건강대응이 필요하다.
20	1. AI 복지 융합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정된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편중되거나 중복된 예산을 찾아내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자원을 발견해서 활용했으면 한다.
19	1. AI 복지 융합	기관 간 조정을 하는 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어 대화 기구를 새로 설립보다는 있는 기관을 활용해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현장의 경우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AI활용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절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현장에 맞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1	1. AI 복지 융합	지역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 중복 혜택의 문제 및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지역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 확대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AI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주 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1. AI 복지 융합	종사자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다. 중복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유된 사이트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편함이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되므로 AI활용을 하면 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10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승진, 월급 등 현실적인 부분이 미약하다.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찾아가는 사회에 대한 모든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서비스제공은 대상자 욕구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실태조사가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가 많이 있는데, 개정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사항)
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복지 수혜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 등 다른 부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 필요하다.
2	2. 복지	(1인가구 복지 문제해결 전략) 1. [맞춤형복지] 각 읍면동 1인가구 조사

T	구분	내용
	패러다임 전환	를 통해 대상자의 상태 조사로 적절한 조치로 즉각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2. [주거 안정] (으뜸마을, 정든마을 등 임대주택)이 시급하다. 제주 시 내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다. 3. [소모임 활성화] 2KM 지원사업으로 지역 밀집 업체 컨택으로 활용시 포인트 적립 등으로 즉각적 보상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4. [일자리 창출] 전문가 기술 교육 및 취업 컨설팅으로 자립 욕구 향상 및 도움이 필요하다.
5	1. AI 복지 융합	AI를 통한다면 예산중복을 줄일 수 있고, 남은 예산으로 더 다양한 곳에 지원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예산중복을 줄여서 하면 좋겠다.
1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AI 신기술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는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관련된 자원이 협업하게 연결 되는 통합적인 버시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의 변화, 복지서비스 통합의 부재로 인해 중복등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화기구나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위기아동이 많이 발생되었을때 그때 행정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한다. 위기대응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행정비로 낭비되고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3	1. AI 복지 융합	정신건강은 어쩔 수 없다. 의료나 정신건강 등 ai로 모니터링 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약 처방, 문화예술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각 가정에 모니터 등을 제공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하지만, 인권의 문제가 있으며, 경험했던 분들이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서 한계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화는 불가피하기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ai를 거부 없이 받아들이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8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복지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1. AI 복지 융합	ai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생애주기별 마음 힘듦에 관한 상담 제공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 상담에 대해 바른 인식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T	구분	내용
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중복 및 서비스 효과가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아동 인권 강화에 따라 과도한 '고발' 등이 발생한다. 핸드폰 등 전자 기기에 대한 몰입 문제 심각하다. 자기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기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자살, 우울증, ADHD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전문적인 통합 상담 센터 설립 필요하다.
13	1. AI 복지 융합	시외는 접근성이 나빠서 거점 연결센터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20	1. AI 복지 융합	예산중복이 가장 큰 문제다. 본인 기관 뿐만아니라 타기관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AI가 찾아서 중복 서비스를 막았으면 한다. 그리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AI가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장점이 많을 것 같다.
1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하지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구분없이 입소를 하고 있어 임상심리치료사 연결이 필요하다.
15	1. AI 복지 융합	중복 서비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개선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를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부모 자식간의 문제, 페이크 뉴스 등 가치관과 이념의 문제, 다양한 문제에 맞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10	1. AI 복지 융합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에 비해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ai 이를 활용해서 업무량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9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복지관과 시설의 종사자 간의 동일시 되지 않고 있어서 동일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상을 지급 받고 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12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았을 때 3무 5특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16	3. 도민	청소년들 고립, 중독, 우울 등 정신문제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상담 이

T	구분	내용
	정신건강 대응	외, 그 이상의 치료인 폐쇄병동에 입원이 필요한 부분은 법적 동의를 필요한데, 행정 입원동의를 청소년이 사고를 치고 112 긴급 수단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도민 정신건강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 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온 오프라인 세대가 모여 현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 맛있는 간식이 매우 중요하다.
17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현장에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달리 새로운 복지 욕구가 들어날 경우에는 기존 종사자 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8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8	1. AI 복지 융합	급변하게 디지털전환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도 단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중에 후회되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센터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13	1. AI 복지 융합	업무가 광범위하고, 행정업무가 많다. ai를 이용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질 좋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줄이고, 실전업무의 질 높였으면 좋겠다.
4	1. AI 복지 융합	학습형 AI를 활용하면 감정 교육도 가능하다. 고립된 청년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위급 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건강 관련 센터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로 이용하려고 하면 해당이 안 된다는 사유 등으로 정작 이용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원스톱으로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11	1. AI 복지 융합	복지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를 AI 사용되면 업무감소와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다. AI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제공하거나, AI를 통해 복지환경의 실태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15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심리적 불안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심리상담 운영을 늘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5	(상호토론)	AI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 말벗로봇 등 기술 지원이 되고 있

T	구분	내용
		는데, 실용화는 많이 안 되고 있음. 한국에도 도입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처음 접하다보니 활용을 잘 안하시는 경우가 많음. 센터 건립 이전에 AI에 대한 접근 이전에 잘된 케이스를 먼저 파악해보는 선진지견학, 사전 접근과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음. 특히 실무자들이 많이 가봐야 함
14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공적급여에 맞춘 서비스제공을 변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 은둔,경계성 지능인 등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제적 빈곤 뿐만 아닌 다양한 빈곤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20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 마약중독이 심하다. 문제를 꺼려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해결했으면 한다.
1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생애 주기별로 원탁회의 같은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2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제주는 정신건강(알코올중독, 가정폭력 등) 부분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1	1. AI 복지 융합	적재적소에 복지 형태, 예산 분배 의 필요 및 AI복지 융합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함께 접목 함으로써 복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18	(상호토론)	AI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수월해지는 것 같다.
19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원탁 토론과 같은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1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협의체 위원이나 오늘 같은 토론 자리에 참석한 경험은 없었다. 이러한 자리가 보편화 되어야 종사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여러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20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고립, 중독, 우울로 인해 1인가구, 청년, 노인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야 할 듯하다.
10	2. 복지 패러다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해 제주형 돌봄 강화해야 한다. 제주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서산간의 접근성이 낮기 때

T	구분	내용
	전환	문예) 방문복지, 이동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법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를 활용해서 식사 제공 등을 제대로 운영한다든가, 노인특화형 일자리를 통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해설사 등) 제안한다.
12	1. AI 복지 융합	독거노인을 위한 반려 로봇, AI를 통한 한글 교육, 인공지능 복지를 현장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음.
11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청소년 도박, 중독, 우울증으로 인한 학교 등교 거부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라고 학교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와 주는 시스템이 있으나 제주는 육지로 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에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9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고 지원체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조기개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13	1. AI 복지 융합	동지역에만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다.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관마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읍면지역에 새로운 기관이 생겨난다면 기존 기관의 차별성이 생길 것이다.
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분류가 아니라 AI복지 융합과 함께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같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8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부모에게 학대, 방임, 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보면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동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황장애, 우울, ADHD등이 발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에 아동청소년들의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에 대응이 필요하다. 자살, 자해 행동을 모방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해서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충동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7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사회복지 시설을 볼 때, AI 복지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인간으로써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사람대 사람으로서 도민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개선 수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보통 기업에서는 능력치를 발휘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댓가지불이 매우 열악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정도에 따라 처우개선의 차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설별로 사회복지 보수 급수의 차이가 있음)

T	구분	내용
14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특히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 고립감 등이 크다 보니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턱이 높으므로 도민정신건강대응이 우선적이다.
18	(상호토론)	SNS가 활성화로 메신저는 대화를 잘 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엔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20	1. AI 복지 융합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줄을 모르고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상호토론)	KT에서 AI로봇 시범사업을 한다.(우도 등). 로봇 자체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는 어렵다. 가격 문제로 실용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복지쪽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 쪽에 AI 관련 예산 편성 확대가 필요하다.
10	1. AI 복지 융합	교육부 및 사회복지 분야 등 이름은 다르고 서비스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ai 등 신기술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확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보다는 대화기구의 관리와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주도 정책으로 현장 체감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11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정신상담 서비스 제도는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 도민이 정신당삼을 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되어야 한다.
1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복지의 수요마다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것이 필요한데 지역내에서 민간사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해준다면 민간사업체가 협력이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에서 정보수집(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량이 멈춘 가정의 경우 가구의 파악)이 용이한데 민간사업체의 경우 실시간 방문밖에 없어서 사고가 난 이후 발견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9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도민 가정 건강이 최우선으로 위기 부모가 없어야 위기 아동, 청소년도 줄어 되게 됩니다. 가족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
17	2. 복지 패러다임	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채용 시 정신건강 검증과 향후 종사자 힐링을 통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복지당사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T	구분	내용
	전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1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육지에 비해 토론 기회가 적고, 전담 부서(상담, 토론)가 부족하여 전용 기관이 생겨야 할 것 같다.
15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이 많아졌다. 소셜미디어에 약이 가득한 사진, 자해사진을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 그 사진을 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민간기관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예산의 절감.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
13	1. AI 복지 융합	기존에 있는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ai를 이용한 심리상담이나 치매예방의 활동, 집이나 가정에서 움직임 활용 등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2	1. AI 복지 융합	1. AI 기술을 활용해 지금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서비스들이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아 복잡해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2. 현재 복지 전달 체계로는 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많아 나에게 맞는 정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AI 검색엔진 등이 필요하다.
16	(상호토론)	고도화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각각 기관에서의 조사된 만큼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각 기관 마다의 정보를 개인정보문제로 공유도 안되기 때문에 각 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사각지대 발굴은 종사자의 역량일 수 밖에 없다
3	1. AI 복지 융합	데이터통계수집에 활용이 필요하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복지사가 진행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은 ai가 해야 한다.
9	1. AI 복지 융합	맞춤형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해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들이 의욕적일수록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 1인당 돌봐야 하는 하는 사람이 외에도 행정 업무도 있고, 부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복지 등이 제공되지도 않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T	구분	내용
13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정하는 게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처럼 다양한 층에서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19	(상호토론)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국의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도 하여 다문화 가정에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차별적인 시선으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함 미래를 생각해 각 나라의 정체성도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있으면 함
2	1. AI 복지 융합	복지에 AI 교육이 접목되어 AI를 활용하여 단순 일상생활에서의 단순 사용이 아닌 복지서비스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1	1. AI 복지 융합	수혜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필요하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과 AI를 사용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차별을 조사하여 중복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중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A기관에서 밑반찬을 받는다고 B기관에서 밑반찬을 받는다고 중복이라고 빼는 것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과연 좋은 방법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17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복지 당사자의 복지 욕구 개인화가 되지 않고 일률적인 종사자 배치의 따른 안전 위협문제와, 낮은 서비스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15	1. AI 복지 융합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아니고,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하면 좋겠다.. 즉, 연계 강화하자. 유명부실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대체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행정이 주체가 되서 개선이 시급하다.
3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청년 우울, 불안,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게 된다. 더불어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 내 전문적인 상담인 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상담관련 기관, 비용지원 등 필요하다.
18	(상호토론)	중증장애인들이 종사자들을 위협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시설에선 제지하는 차원에서 퇴소 조치를 하지만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다보니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2	(상호토론)	제주복지 공동체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제주복지 공동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함. (모호함.) AI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음. AI를 사회복지에 도입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닥쳐야 욕구를 해결하고 개선

T	구분	내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 도입 되기 전에 욕구,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7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급변화되는 사회에서 개인적인 성형이 높아져서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익명성 유지와 접근성이 쉬운 현재 시대에 맞는 복지 개선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	(상호토론)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안전관리체계에 관해 시스템화를 시켜서 정기적으로(20년 또는 20년) 관리를 해주었으면한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자동화시켜서 예산 반영을 해주었으면 한다.
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현재는 ai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과 민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읍면동별로 사회복지기관 및 복지에산 배분이 필요하다.
3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자살률 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전국 1위다. 도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뒤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10	(상호토론)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정부지원금 등 사용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간소화에 ai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16	1. AI 복지 융합	시복지 융합이 된다면 예산 사용과 범위를 년도별,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의 파악이 필요하다. 세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요가 변경되고 있는데 공급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에 자원의 예측과 필요없는 곳의 사용되는 것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8	(상호토론)	아동,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다 보니 아동, 청소년의 욕구와 관점을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아 늘 소외되고 있음을 느껴진다.
4	(상호토론)	젊은층과 대화하기 어렵다. 생각의 차이가 많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언어 생활이 매우 거칠다. 거의 욕이 많다. 대화가 거의 안된다. 젊은층은 욕구는 많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9	1. AI 복지 융합	업무와 디지털 시간 부족으로 종사자 중복 업무 개선하고 수요자의 필요 사항도 통합 운영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5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뉴스가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은둔, 고립 등의 문제로 연결 될 수 있다.

T	구분	내용
3	1. AI 복지 융합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이 많음. ai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가족의 얼굴을 모니터로 보며 대화하는 등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 된다.
19	(상호토론)	농어촌에는 한국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오히려 한국 아동이 그룹 내에서 차별을 받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여 이해 교육은 서로에게 필요하며 양육하는 부모 교육도 필요함
2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복지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 개발을 하나 실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고민은 정책적으로 크지 않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종사자 총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좋은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2	(상호토론)	제시된 복지 전략이 정치권에 제시하는데 있어 적절한 타이틀인가? 포럼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주제인가? 궁금함. 토론회에서 더 열린 질문을 통해 전략 분야가 제시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10	(상호토론)	정부시스템 자체를 고치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업무량 줄이기), 실태조사 등이 너무 많은데 이런 조사를 줄이고 ai를 활용해서 신청, 조사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5	(상호토론)	도민 정신건강 대응과 관련하여 운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운동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도민 위주의 통장 및 이장을 선출하고, 통장,이장장의 급여나 처우를 강화해서 통장,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및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17	1. AI 복지 융합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절을 AI를 활용하여 데이터화하면 중복을 낮추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상호토론)	우리는 항상 대안으로서 새로운 것을 설치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20	(상호토론)	제주도에서 실현가능한 AI 기술의 수준이 서비스 접근성과 문제해결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성과가 없다면? (사투리, 수요자의 욕구 불만에 대한 처리)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10	(상호토론)	ai 활용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럴 활용하는 시스템의 일체화가 필요하다. 상담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예민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	구분	내용
4	(상호토론)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었다. 선생이 학생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다. 교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예시: 선배시민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19	(상호토론)	SI를 실제 적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 염려된다. 예를 들어 현장에 도입 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전 직원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12	(상호토론)	예전부터 민간 자원들 간의 협업, 민간-공공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해왔으나 잘 되어오지는 않았다. 무엇인가 영역별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상호토론)	바우처카드 등을 통해 정신 및 운동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운영되지 않음. 세어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음. 지원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함.
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통해서 수요자의 욕구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	(상호토론)	(종사자 근로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과 종사자의 근로 형태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종사자의 근무 패턴을 다양화하여 장기근속자를 늘려야 한다. (교대 인력 부족에 따른 탄력근로 등)
10	(상호토론)	정부에서 방침을 주고 ai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복지정보의 통합,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에 활용하자.
17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복지인력양성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단순한 복지 서비스는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복지돌봄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3	(상호토론)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ai도입은 불가피 하다. 사회복지가 열악하지만 사회복지의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람이 본인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 수혜자들은 변화한다. 제대로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다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T	구분	내용
16	(상호토론)	사회복지사 개별적 역량 뿐만 아닌 보편적인 역량의 평준화를 위하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상담을 하고 난 뒤 기록의 경우 상담사 개인의 판정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따른 근거기반의 문항이 상담내용과 자동 연결지원되는 병원과 같은 시스템 도입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20	(상호토론)	한정된 자원이 중복이 안되게 예산이 효율적 집행될 수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5	(상호토론)	제주 1인가구, 고독사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도박중독,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관마다 관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역별 상담 및 치료 등 지원이 되고 있음. 하지만 매우 부족하여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찾아가는 상담의 날 등 직접 방문 하는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함
4	(상호토론)	제주도를 청년층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2	(상호토론)	(근로자 관련) 제주도 생활임금이 사회복지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실태이다. 초임부터 적절한 보상이 적용되어야 젊은 층의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민보다 실제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9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개선 해야 할 부분이 복합적이라 원탁 회의 내용이 보고서를 위한 단순 결과 유출을 위해 준비 된 것 같습니다.
8	(상호토론)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직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혜택은 일부 지원을 받는 느낌이고, 아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야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공정하게 느껴집니다. /복지서비스를 매칭하려고 하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생활시설 퇴소자나 가정밖 청소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대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심부와 동떨어진 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연령대별로 복지 관심사도 다르고 주 욕구가 달르는데 서비스의 편차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자립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글로벌시대니까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일자리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가 육지에 있는

T	구분	내용
		대학을 지원했으면 바라게됨(졸업 후 취업문제 등)-자녀 독립을 지자체와 논의가 되지 않고, 시원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확신을 못주는 복지체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제도의 범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되소자에게도 혜택을 주기원함)-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주기 바랍니다.
5	(상호토론)	각종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는 보건소에 있음. 보건소와 같은 정부기관 등과 복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1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노인복지 문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은 치아보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틀니의 경우 기관에서 50% 보조가 들어가지만 비용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보철의 경우 65세 이상 지원되고 있으나 연령을 낮추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치아 문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리가 되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17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종사자 교육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2	(상호토론)	(청년 일자리) 초봉이 낮은 문제가 있지만 제주로 이주해 온 청년들에 대한 거주지 지원, 문화혜택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보 제공이 촘촘하게 되고 있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상호토론)	젊은층이 제주도를 떠나는 이유는 경직된 조직 구조 때문이다. 폐쇄성 높음. 제주도는 좁은 동네. 한다리 건너 모두 아는 사람들이다. (권당문화의 부정적 측면)
10	(상호토론)	사회복지 처우 내에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승진 등이 정제되는 등 구조적이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13	(상호토론)	ai는 학습을 시켜야하기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곳에 에너지를 투자하지말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있는 분들을 위해 ai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복지는 개인정보등을 작성하여 ai를 이용했을 때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개인정보강화가 필요하다.
20	(상호토론)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 될 수 있다.
14	(상호토론)	-1.AI 사용이 대세로 변하겠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AI가 대체하지 못하

T	구분	내용
		<p>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p> <p>-2. 사회복지에서 중복수급이 많은데, 여전히 서비스이용에 대한 행정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면이 많다.</p>
7	1. AI 복지 융합	챗GPT 활용한 AI 수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수립 되었으면 합니다.
17	1. AI 복지 융합	복지서비스 분절을 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문제를 일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임.
19	(상호토론)	<p>업무의 효율을 위한 사무자동화는 AI와 명확하게 구분됨. AI는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I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데이터 기반의 편향적 사고로 복지 분야에 접근한다면 인간성 상실에 염려가 있어 도입은 시기상조이나 신기술은 필요하고 그 구심점이 되는 기관이 있어야 함.</p>
16	2. 복지 패러다임 전환	종사자의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복지사 신입직원 연봉이 너무 낮아 신입 인원 인입이 적은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입 직원의 채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7	1. AI 복지 융합	복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복지 요청을 하시는 편인데, 분절되어있는 복지서비스 파악이 되지 않아서 시스템으로서 확인이 필요하다.

2. 참가자 대상 사전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 년 9 월 9 일~9 월 12 일(4 일)
- 조사대상 : 토론회 참가 신청자 198 명 중 117 명 (응답률 59.4%)
- 조사내용 :
 - 인구사회학적 조사: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군
 - 의제관련 기본 인식조사 :
- 조사방법 : 참가자 대상 문자 발송에 의한 웹조사
- 분석방법 : 개별 의견의 키워드 추출 및 상향식 구조화

※ 주의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음. 이는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음.

A. 인구사회학적 조사

1. 성별

- 1) 여성 61.5% 2) 남성 38.5%

2. 연령대

- 1) 20 대 16.2%, 2) 30 대 21.4%, 3) 40 대 28.2%, 4) 50 대 24.8%, 5) 60 대 6.8%, 6) 70 세 이상 2.6%

3. 거주지역

- 1) 제주시 동지역 76.9% 2) 제주시 읍면지역 12.0% 3) 서귀포시 동지역 8.5% 4) 서귀포시 읍면지역 2.6%

4. 직업군

- 1) 학생 12.8%, 2) 판매/서비스직 0.9%, 3) 자영업 1.7%,
4) 전문직 4.3%, 5) 주부 2.6%, 6) 사회복지 관련 73.5%, 7) 기타 4.3%

4-1. 사회복지관련 직업군

- 1) 노인 복지 종사자 11.6%, 2) 장애인 복지 종사자 34.9%, 3)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 12.8%,
4) 여성/가족/다문화 종사자 8.1%, 5) 지역사회 종사자 29.1%, 6) 기타(노숙인, 푸드뱅크) 3.5%

B. 제주 사회 복지 서비스 인식조사

* 제주 사회복지서비스 조례 인지도

1. 귀하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를 알고 계시나요?

구분	비율(%)
1) 매우 잘 알고 있다	0.9
2) 알고 있다	44.4
3) 들어 본 것 같다	35.9
4) 모른다	17.1
5) 전혀 알지 못한다	1.7
합계	100.0

2.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변화(복지대상자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분	비율(%)
1) 매우 증가	25.6
2) 증가	60.7
3) 보통(변화 없다)	12.8
4) 감소	0.9
5) 매우 감소	0.9
합계	100.0

3.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변화가 늘어난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비율(%)
1) 노인 복지 : 노인 돌봄, 건강관리, 여가 활동	65.0
2) 장애인 복지 : 자립, 재활, 사회적 포용, 도서 지역 이동 지원	15.4
3) 아동 청소년복지 : 아동 보호, 교육, 청소년 자립 지원, 이주가정 아동지원	8.5
4) 여성 가족 복지 : 여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주 가정 지원	3.4
5) 저소득층 복지 : 경제적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계절 근로자)	7.7
합계	100.0

4. 사회복지 서비스 변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비율(%)
1) 제주도 인구 감소	4.3
2) AI 등 디지털 대전환	5.1
3) 초고령 사회 진입	54.7
4)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의 증가	16.2
5)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10.3
6)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욕구 증가	8.5
7) 기타 : 저출생 및 가족 형태의 변화	0.9
합계	100.0

4-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비율(%)
1. 초고령 사회 진입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 증가 * 전체 인구는 감소하나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 1. 가정과 개인이 돌봄 책무 다하기 어려움 2. 노령 인구 경제 활동 저하 3.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의 초고령화, 부모 부재 문제	45.3
2.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 및 개인 증가 * 소득 감소, 경제적 어려움 전반적 * 빈부격차 심화되고, 생계곤란, 주거 불안 증가 1.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 수요 갈수록 증가(과거 사각지대라고 했던 케이스의 보편화 현상) 2. 정신건강 문제 심화 3. 아동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11.3
3. 도민의 보편 복지 수요 증가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환 필요 2. 경제적 빈곤층 복지 수요 증가 3. 다양한 생애주기(돌봄, 주거, 문화, 건강) 영역에서 보편 복지 수요 증가	16.0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요구 증가 1. 욕구에 맞는 서비스 기대 증가 2. 전통적 복지에서 개인 중심 서비스 강화 3. 개인별 돌봄 상황 차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기대 증가	6.6
5. 제주도 인구 감소 * 전반적인 인구 감소 /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 1.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자체 감소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복지 재편 필요	3.8
6. AI 디지털대전환 1. 사회복지 서비스 각 분야에 AI 기술 접목 대책 필요 2. 새로운 복지대상(디지털 소외계층) 등장	2.8
7. 저출생 및 가족 형태 변화 - 국내 결혼 감소하고 국제 결혼 증가 - 가족 형태 다양화(전통적 가족 모델 해체) -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 재혼가정, 다문화 가정 등) 증가	14.2
합계	100.0

5.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제주사회의 복지 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구분	비율(%)
1) 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 등과 이로 인한 적재적소 예산 배분의 어려움	20.6
2) 신기술(AI) 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현장 즉각 적용 어려움	6.4
3) 복지 관련 도민 간 욕구 조정의 어려움 (사회적 약자의 증가)	6.4
4) 도민의 맞춤형 복지 욕구 증가와 대응 어려움	18.1
5)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업무량 증가 문제	29.4
6) 생애주기별로 확대되는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중독, 불면, 마약류 등)의 발생	10.8
7)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이탈 현상	7.4
8) 각종 검진 기술의 발달로 복지 서비스와 건강 관리 수요 꾸준히 증가	1.0
합계	100.0

5-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비율(%)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전화되어 복지 정책도 변화 필요 1.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서비스 중복 개선 필요 - 중복지원, 사각지대 조사 및 보호 필요 2. 외곽, 시설 지역 맞춤형 요양 서비스 필요 - 읍면 지역의 재가돌봄 인력 부족, 동지역 서비스 편중 개선 필요 3. 새로운 복지 수요 예측, 예방 가능 4. AI 를 활용한 복지 필요 5. 가족 형태 변화, 자녀들의 부모 공양 의식 변화되고 있음	45.6
2. 제주 복지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1. 사회경제적 약자층 증가와 갈등 문제 해결 필요 2. 토론 속의 과정을 통한 갈등 완화, 소통 부재 개선 - 의견 수렴, 현장 의견 전달, 욕구 파악 후 공급 구조 확립 필요 3. 기존 협의체(행정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강화 - 공공, 민간 협력형 복지 운영 필요 -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양극화 해소 4. 수혜자 중심 인식에서 존엄, 자기 결정권 존중으로 패러다임 전환 5. 사회복지 중복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센터 난립) 6. 행정 주도 정책으로 현장 체감도는 부족 개선 시급(민관협력)	26.3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 중독, 고독사,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확산 * 전 세대, 계층으로 확대되는 문제 (청년층 정신 건강에도 관심 필요) 1. 불안 심리로 인한 위기 증가 대응 2.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논의하는 협력 구조 필요 3. 늘어가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립감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4.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5. 생애주기별(청소년, 노인, 장년 등) 정신건강 상담, 치료 할 곳 부족 6. 비대면 증가로 사회적 대인 관계 기회 축소되며 고립감 확대 7. 문제 발생 전 예방차원의 지원 필요	26.3
4. 기타 - 기구 출범 보다 촘촘한 관계 형성망 필요 - 위기 아동, 위기 부모에 대한 대응 필요	2.0
합계	100.0

C. 제주 사회 복지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1.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제주도의 사회복지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게 좋을까요?

구분	비율(%)
1) AI 등 신기술 사회복지 센터 설립 : 서비스 중복 개선, 각종 돌봄 서비스 대응, 새로운 복지 수요 예측과 예방 등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과 교육 담당	31.9
2) 제주 복지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주 복지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수요 증가와 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주 복지계열 사회적 대화 추진	39.8
3) 도민 정신건강 대응 사회복지 라운드테이블 구성 : 전 세대로 확대되는 고립, 중독,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도민과 사회복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도민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가칭 도민 정신건강 특별 사회복지 위원회 대응	26.5
4. 기타 - 무관심하고 다른 단체와의 협업 진행도 미미하다	1.8
합계	100.0

3.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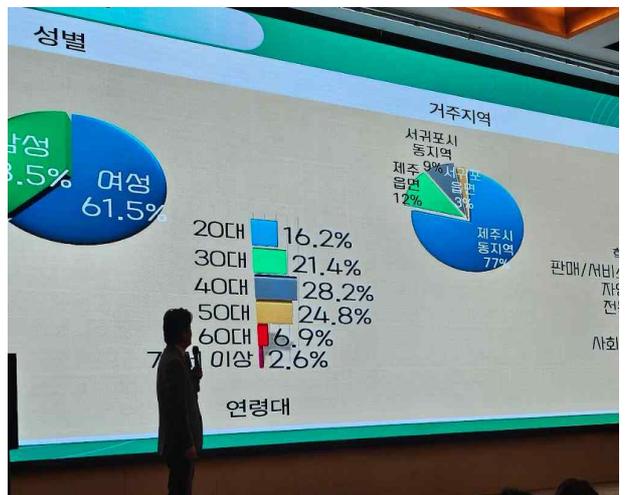


퍼실리테이터 큐시트 미팅/교육



퍼실리테이터 소개

퍼실리테이터 미팅



현장 인식 조사

사전조사 결과보고



소그룹 토론 사진



소그룹 토론 사진



소그룹 토론 사진



소그룹 토론 사진



소그룹 토론 사진



소그룹 토론 사진



전체토론



전체토론



토론결과 공유

기념촬영